

마이크로소프트 상무

김시연



로운 윈도우 모바일 버전을 채용한 단말기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윈도우 모바일이 출시된 후 장치는 10개월 정도 뒤에 시장에 등장한다는 통상적인 개념을 적용하면 그렇다는 것이다.

윈도우 모바일은 최근 심비안OS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높은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다.

2002년 1개의 제품에 사용된 이 OS는 현재 55개국 47개 제조사가 100개 이상의 윈도우 모바일 기반 디바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심비안OS가 노키아 주도로 시장을 견인하는 것과 확연한 차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김시연 상무는 이어 “윈도 임베디드 분야에서는 윈도CE 차기 버전인 윈도우 CE6.0과 윈도우 XP임베디드 차기 버전이 발표될 것”이라 말했다. 출시가 예정돼 있을 뿐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는 윈도모바일과 윈도임베디드로 나뉜다. 윈도 모바일은 스마트폰 같은 곳에 채용되는 제품이고, 윈도임베디드는 PDA 등에 채용되는 윈도CE가 대표적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 기기용 소프트웨어가 윈도모바일과 윈도CE로 구분되지만, 윈도모바일이 ‘스마트폰’에, 윈도CE가 ‘PDA·PMP’에만 채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 회사 이진복 차장은 “윈도모바일을 사용하면 UI 등 많은 기능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정한 것에 준수하며 단말을 제작해야 하는 반

“윈도모바일 기반 제품 100개 이상 등장”

“조만간 업무 생산성 향상 기능이 추가된 윈도 모바일 차기 버전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윈도 임베디드 2006 하반기 전략 발표 자리에 참석한 마이크로소프트 김시연 상무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 윈도 모바일 차기버전이 발표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더욱 강력하게 모바일 시장을 개척할 수 있게 될 것”이라 말했다.

작년에 발표된 윈도모바일5.0이 E-메일 푸시 기능과 보안·장치 관련 기능을 대표로 내세웠다면, 올해 발표될 차기 버전은 비즈니스맨들의 업무 향상을 주력으로 밀고 있다. 새

면, 윈도CE는 제조사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차이”라고 설명했다.

임베디드 분야에서도 윈도우 임베디드는 세계 상용 임베디드 운영체제 부문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을 비롯한 1000여개 이상의 기기 업체들이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특히 윈도CE는 국내 PDA 시장 석권에 이어 PMP 시장마저 거의 점령한 상태이다. PMP업체들은 자사 1차 PMP 모델을 리눅스OS 기반으로 가져갔지만, 2차 모델부터 윈도CE를 선택하고 있다. **☐**

글 | 김중을 기자